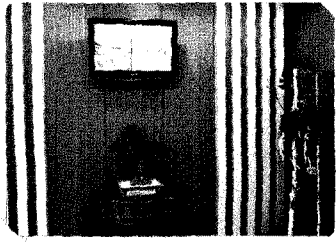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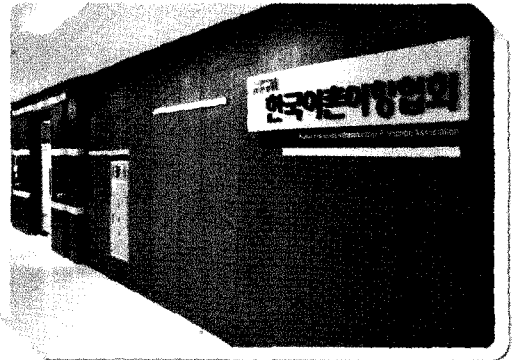


◦ 협회 신사옥 이모저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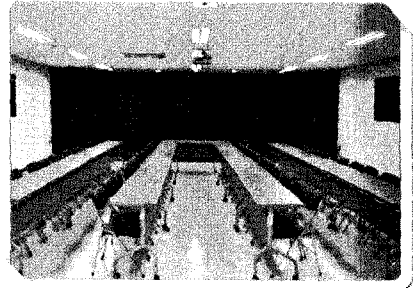
출입구



사무실 전경(외부)



협회가 12층에 입주하고 있는 한라시그마빌리



대회의실



사무실 전경(내부)

## 상생과 협력의 노사공동워크숍 개최

2020 뉴비전 ‘바다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일류 수산전문기관’ 선포를  
통해 노사 공동의 목표 인식·공유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동안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에서 2020 뉴비전 창출과 함께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협회 임직원 62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 협회의 노사관계 선진화 실천을 위해 노사 화합과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상생과 협력’ 중심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한마음’ 마인드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심호진 회장은 ‘2020 뉴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밝히면서 어촌어항협회가 바다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일류 수산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박영범 한성대 교수를 초빙하여 ‘공공기관의 노사관계현황과 선진화를 위한 과제’에 관한 특강을 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선택과 결정’과 자신감 고취를 위한 ‘리더십과 노사화합으로 일궈낸 2009 경영성과’ 시청각 교육도 했다.

이을러 ‘연봉제, 성과관리제 개선방안’을 위한 분임토론(노사실무소위원회) 및 공동 액션러닝과 수산물요리 경진대회, 장기경연 등을 통해 노사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소통과 협력 · 공공 파트너십 워크숍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개발원 상호수행업무  
이해와 발전방향, 현안사항 논의



「2020 뉴비전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주제발표하고 있는 장철호 전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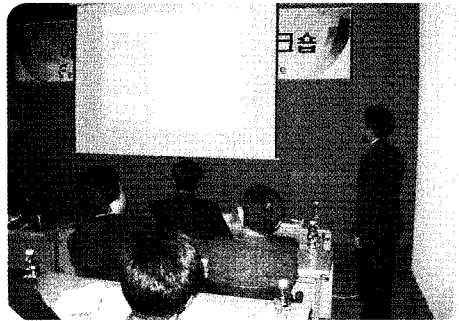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개발원이 협력과 소통강화를 위한 공공 파트너십 워크숍을 실시했다.

지난 11월 27, 28 양일간 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 장철호 전무이사의 「2020 뉴비전 및 중장기 발전방향」과 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박사의 「수산부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방향」 등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워크숍은 협회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고, 수산부분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와 현안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어촌어항협회 新어항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새로운 어항개발정책 방안 도출



「해외 선진어항 개발사례」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황철민 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新어항정책 개발을 위한 공공 파트너십 워크숍을 실시했다. 지난 1월 29, 30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최완현 수산개발과장의 「新어항 개발 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강의와 한국어촌어항협회 황철민 본부장의 「해외 선진어항 개발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하고 어항이 생산·유통·가공·관광 기능 등을 겸비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어항개발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어항공사 조기집행을 통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어항공사의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어촌어향협회 사랑의 물품 전달 영덕군 창포리·안산시 선감 자매결연 어촌계 지원



한국어촌어향협회는 지난 12월 18일과 21일 자매결연 어촌인 경북 영덕군 창포리어촌계와 경기도 안산시 선감어촌계를 방문하여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협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 강태공들, 태안에서 최고 기량 대결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한국낚시연합이 주관한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11월 28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렸다.

전국의 강태공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낚시대회는 조피볼락(우럭)을 대상어종으로 두 마리 합산 최대어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가렸다.

최종 승자는 40센티미터급 두 마리 합산 84.5센티미터를 기록한 김영웅씨에게 영예가 돌아가 장관상과 함께 5백만원 상당의 낚시도구 일체를 부상으로 받았으며, 6위까지 시상하는 대회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는 김미선씨가 3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해안 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펼쳐진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부녀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줌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으며, 어탁작품 전시회,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도 열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인의 환경보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단위 낚시대회를 바다와 민물에서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010 수산을 전망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 2010 국제수산전망대회 참가



어항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우측에서 두 번째)

종합토론에 참석하고 있는 장철호  
한국어촌어항협회 전무이사(우측에서 첫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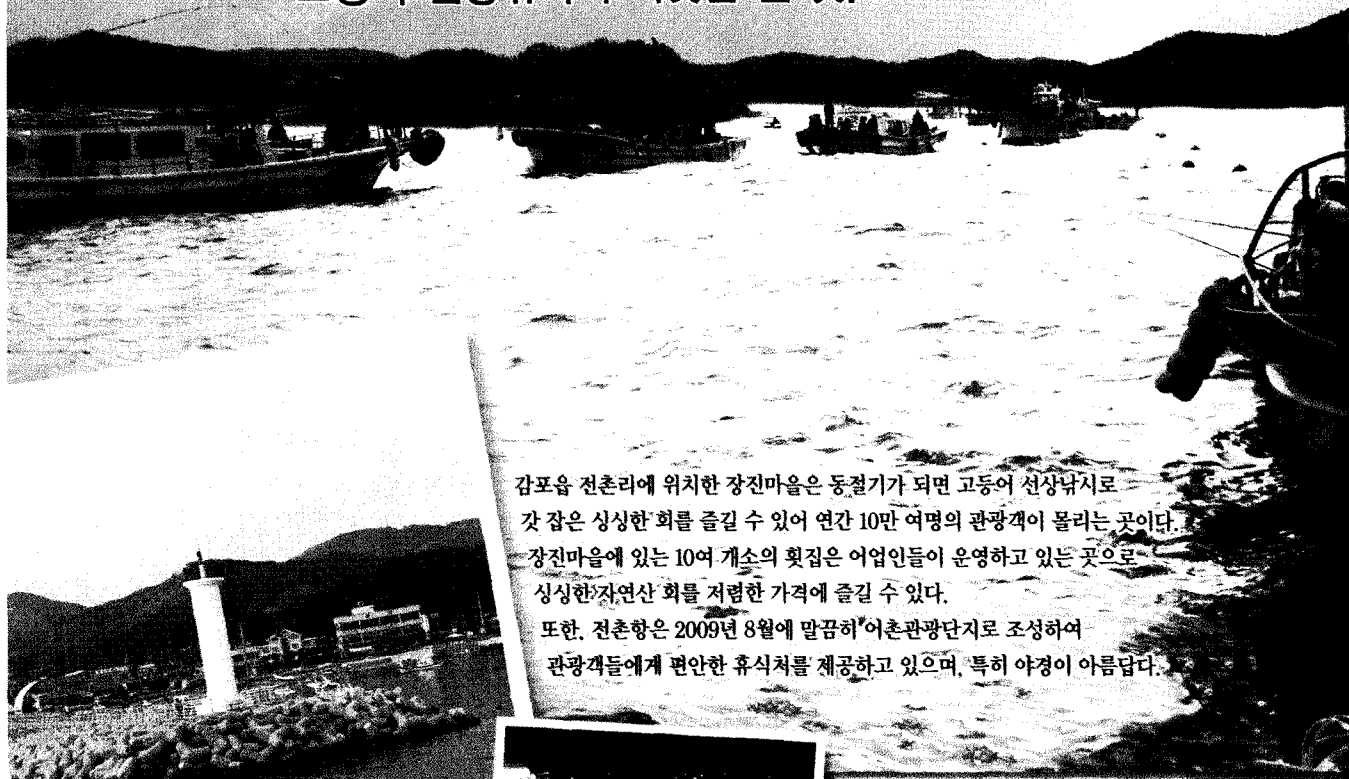
한국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은 지난 1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0 국제수산전망대회에 참가했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010 수산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최한 이날 대회에는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및 수산관련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어장에 관한 자료와 사진, 어항모형 등을 전시·홍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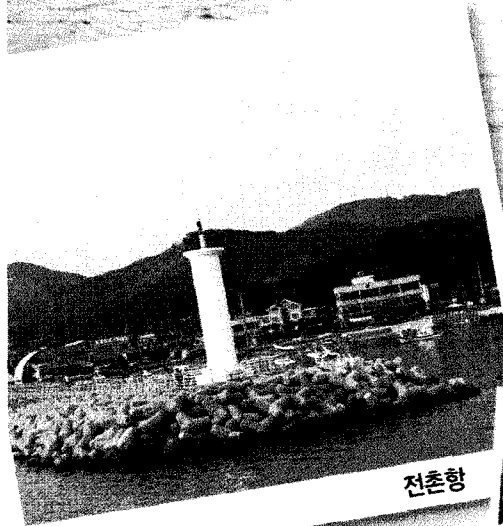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외국의 석학들을 초청, 국제적 여건 변화와 전망을 제시하고, 새해 들어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수산정책과 수산업 전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 장진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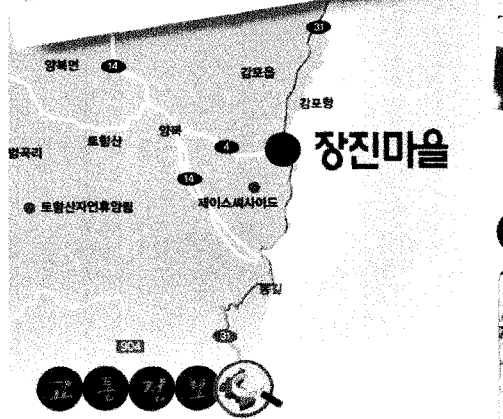
## 동해의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 즐기는 고등어 선상낚시의 짜릿한 손 맛!



감포읍 전촌리에 위치한 장진마을은 동절기가 되면 고등어 선상낚시로 갓 잡은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어 연간 10만 여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장진마을에 있는 10여 개소의 횃집은 어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싱싱한 자연산 회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촌항은 2009년 8월에 말끔히 어촌관광단지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야경이 아름답다.



전촌항



### 장진마을



전촌항 어촌관광단지 야경



**전촌항 어촌관광단지** 2009년 8월 8일 준공된 전촌항 어촌관광단지는 야외무대, 바딕분수, 파고라, 전망대, 목재보행데크 조성, 아간경관조형시설 설치 등으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갈매시** 경주에서 동해안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보면 짐작할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도 벽도 모두 돌로 된 석굴이다. 북쪽벽이 감살을 피고 부처를 모셨으나 마멸 정도가 심해 투명보호막을 설치, 보호하고 있다. 선무도로 유명하여 여름방학이면 학생들의 수련도장으로 유명하다.

**고등어 선상낚시** 동절기에 잡아 올린 싱싱한 고등어회를 즐기기 위해 연간 10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전촌항 유망점** 가족이나 연인들이 차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넓고 길게 펼쳐진 백사장과 해변 산책로, 가로등시설, 주차장, 샤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참가자마, 참전복, 돌미역, 자연산 회